

생명운동집담회

세월호 참사,

어떻게 기억하고 행동할 것인가?

때 2014년 7월 23일(수) 오후 3시-6시

곳 우리함께 빌딩 (서울 장충동2가)

모시는 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모여 전국 각지에서 노란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끔찍한 참사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뜻을 왜곡하고 상처를 주는 언행들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자녀를 잃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학생들이 지친 몸과 아픈 마음을 안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아파 하는 시민들의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죽임의 사회를 넘어 생명살림의 세상을 향한 길을 일찍이 나섰던 생명운동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생명운동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둔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행동할 것인지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집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하셔서 귀한 생각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진행

[사회] 전진택 (생명평화결사)

· 15:00 – 15:10 참가자 인사

· 15:10 – 15:40 문제인식 나누기

1) “세월호 참사가 생명운동에 던지는 질문들”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2)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본 우리의 현실과 변화의 조짐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3) “세월호 참사의 전과 후,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있나?”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 15:40 – 16:40 집담회 1 – 생각과 경험 나누기
“무엇이 문제인가?” (참가자 전체)

· 16:40 – 17:00 휴식

· 17:00 – 18:00 집담회 2 – 제안과 공감
“무엇을 할 것인가?” (참가자 전체)

함께한 분들

권명기(한살림고양파주)
김기중(한살림고양파주)
김보하(한살림서울)
김영연(생태유아공동체)
김현(모심과살림연구소)
류홍변(안산YMCA)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용광(한살림경기남부)
박혜숙(한살림서울)
서미영(한살림고양파주)
서춘원(한살림연합)
신용란(한살림경기남부)
심미경(한살림경기남부)
심세희(안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유정길(지혜공유협동조합)
윤기돈(녹색연합)
이승언(한살림서울)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전진택(생명평화결사)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정웅기(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주요섭(모심과살림연구소)
채인숙(한살림경기남부)
하만조(모심과살림연구소)
현정원(한살림경기남부)

전진택(사회) _ 생명평화결사

그동안 생명운동집담회라는 모임으로 달마다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를 해왔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짐작처럼 그 이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기본 화두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 세월호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된 것 같다.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담아 모색해보자는 생각으로 함께해 주십사 청했고 그 요청에 동의하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발제1. “세월호 참사가 생명운동에 던지는 질문”



정규호 _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 참사 100일, 무엇이 바뀌었나. 무거운 질문을 갖게 된다. 각자 개개인이 답답해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이후의 수습, 처리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일부 정치인들은 본래 뜻을 왜곡하는 발언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 2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또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쪽과 대통령을 구하자는 목소리가 부딪혀 이상한 선거가 되었다. 7.30 재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그 의미를 반문하게 된다.

얼마 전에 위험사회론자 올리히 벡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다. “한국사회가 탈바꿈하려면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위험에 너무 노출돼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위험한 줄 모른다는 것이다. 엄청난 위험성을 가진 가까이 원전을 두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나는 무엇이 바뀌었나를 돌아보게 된다.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의 관계맺음에 우선순위가 바뀐 게 별로 없다. 일상적인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꾸자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함께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매년 4월 16일은 다가오고 그때마다 미안함과 죄책감 속에 맞을 수는 없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 갈등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고, 이래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각종 오해, 억측도 나오고 있고 의도적인 왜곡도

발견된다.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거기에 계산하고 조건을 달고 유족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돈과 이윤을 앞세워 생명을 죽이는 참사가 만들어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치 교통사고로 비유되고, 유족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분리시켜 제3자로 만들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처럼 구도가 만들어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세월호 못지않게 위험천만한 원전, 밀양, 청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농업을 포기한 쌀 시장 개방, 4대강 등이 세월호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다.

선장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낡은 배에 선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생명이 꽃피우는 사회,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필요할 것 같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 책임성을 가진 양식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가고 조직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 같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 일이다. 길게 내다보아야 하지만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서명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이웃을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도 찾고 힘도 길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내년 4월 16일을 맞이했을 때 그런 미안함과 부끄러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살 제2.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본 우리의 현실과 변화의 조짐들"

유정길 _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세월호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제가 하고 있는 지혜공유협동조합 밴드에 세월호 사건 이후 관련 글이 계속 올라왔다.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어서 토론회를 했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 거의 빠지지 않고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하루에 평균 5~600명 정도, 많게는 3,000명까지 받았다. 서명운동을 진행한 사람들 명단을 보니 약 2백 명 정도다.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도 다수였다. 정토회에서도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보름의 기한을 두고 100여 곳 정도에서 진행해서 14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본인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스스로를 각인하는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 문제를 깊이 면밀하게 살피게 되고, 향의하는 몇몇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런데 대한 논리를 스스로 갖게 되기도 한다.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끈끈한 동지의식 같은 것도 생겼다. 같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지역 내에서의 공동의 연대의식이 생기기도 했다. 초기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일반 단체 경우는 천만명, 백만명 서명을 선언적 구호로 여기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생각지 않는다. 이것 하나에만 올인 할 수도 없다. 천만명 서명운동에 관념적으로 동의하지만 전력투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서명운동이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니 사회단체들이 관심 갖고 결합하기 시작했다. 정당에서도 이 움직임이 예사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고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었다. 서명운동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감동하기도 한다.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다 참여한다. 40대 남성들도 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많이 참여한다. 일산에서 강연도 있었고, 고양파주 내 행사에서 피켓팅, 퍼포먼스를 같이 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100일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요구를 그동안 해왔다.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운동가들이 갖는 패착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경우와 유가족, 생명운동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느낀 온도차가 있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고, 선장과 선원이 먼저 나왔던 상황, 초기 구조작업이 더뎠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 볼수록 의도하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일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실제 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믿기도 한다. 이 내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운동단체의 경우 박근혜 퇴진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구체성을 보자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생명을 경시한 사회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안전한 사회, 생명중심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만 초점을 둘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팩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인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이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배가 가라앉은 것 해운업체가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의 탐욕, 구조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력 등 문제가 매우 많다. 그런데 구조하지 못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청해진해운만 문제 삼으려고 한다. 정치는 계속 둘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 중이고,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받고 보람도 느낀다. 애쓰고 힘든 것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위로도 있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동지의식과 연대감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호를 잊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서명운동이 참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정당성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분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활동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깊이 각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앞으로 생명중심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겠지만 천만명 서명을 달성하는 활동들을 단체에서 했으면 한다. 서명운동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의 공고한 연대의식이 생긴다. 회원들이 갖는 결합력, 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스스로가 정의로운 정당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YMCA 등 주요 단체들이 100만 명씩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회원들로 하여금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 단체들이 이슈와 이슈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례 3. “세월호 참사 전후,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있나”



류홍변 _ 안산YMCA 사무총장

지금 안산은 변화에 있기보다는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하루하루 서명운동, 국회 지원 자체가 하루 일과다. 그 상황 속에 그냥 생활한다고 보면 된다. 변화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활동 중에 있다.

안산 지역 상황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실 고민은 많다. 100일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

다. 지금 분위기를 돌아보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변화가 생길까. 지금 정치권 모습, 정부 대응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바뀔까. 이런 데 대한 좌절감이 많이 드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가질 것인가,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다. 특별법, 진상조사, 서명운동과 더불어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안산에서는 세월호 문제 이외에는 다른 이슈나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에서 30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대 1 서비스는 700명 공무원이 매일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2000명 중 1/3이 투입되고 있다. 기존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봐도 된다.

시민사회단체도 100일 동안 6월 20일까지 매일 집회를 했고, 진상조사와 서명운동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전환되면서 동네촛불로 바뀌었다. 그런 기간 동안 단체들이 지금 무척 힘들어 한다. 세월호에 올인 하느라 단체 내부의 상황은 말이 아니다. 조직 운영, 재정적 문제 등이 있지만 세월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자 안산시민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00일 동안 팽목항을 매일 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진상조사, 안산의 47개 단체가 모여 있는데 헌신성이 대단하다. 내부의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일들을 아무런 불만 제기 없이 묵묵히 잘 나누어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긴급히 조직되면서 지원사업

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세월호가 또 다른 안산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면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활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새로운 게 있다. 시민기록 활동과 트라우마센터다.

자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기록 단위가 만들어졌다. 세월호가족대책위시민기록단이 만들어지고 각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려는 활동이다. 트라우마센터도 우리나라 재난 사상 처음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에는 직후에 긴급히 만들어졌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까지 1만 명 가까이 상담을 진행했다. 2차 피해 예방, 7월 9일에 희생자 친지 한 분이 자살한 것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서 의미를 볼 수 있다.

시민단체가 시 도움을 받지 않고 20만 명을 받은 것도 적은 인원은 아니다. 특별법이 잘 만들어지는 게 문제해결의 일차적 단계다. 진상조사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다. 유가족이 낸 법안에는 세 가지 위원회가 있다. 진실규명/안전사회/치유·기억 소위원회. 수사권, 기소권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깝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 같다. 긴급대응이 대부분이었다면 100일이 지나고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안산에서 토론회를 몇 차례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1960년부터 지금까지 20명 이상 사망한 대형 재난사고가 65회 있었다. 해양 관련 된 게 12번 있었다. 전체 재난 발생으로 6,544명이 사망, 해양 관련해서는 1,913명이 사망했다. 일 년에 한 번꼴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고, 평균 1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양사고도 일 년에 두 번 정도. 대규모 사건들을 보면 삼풍백화점을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였다. 왜 재난 사고에서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가 하는 근본적 불신과 회의가 생긴다.

우리 사회가 이번 계기로 바뀔까 의문도 든다. 세월호를 잊지 않게끔 하는 핵심 주체는 안산인데, 그런 부담감도 한편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구지하철참사를 보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안산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거대담론으로 가지 말고 실속 있게 가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모시설, 추모기록 등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다.

당사자운동이 중요하단 생각도 든다. 가족대책위가 존경할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 분열하지 않고, 운동권이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비난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가족대책위를 제외하고는 발언력이 없다. 당사자들이 어떤 목표와 지향과 방법을 갖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갖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잘 받아서 가는 게 세월호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고리일 것 같다.

세월호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토론해보고 싶다. 정치적 갈등 프레임, 진보/보수 정치구도에 또 다시 갇히는 것은 아닌가. 청계광장에서 집회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프레임을 다시 진단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한편으로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때다. 토론을 많이 조직해야 한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가 바뀔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문화와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원인

규명과 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토론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담론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안산에서도 시민대책위가 특별법 때문에 여력이 없다, 토론을 못하고 있다, 이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목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표. 치유와 회복을 위주로 한 목표가 있고,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관피아 문제, 해양안전시스템,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재난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다 바뀌야 하는데 결국 정권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되고 만다. 방향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다.

대구지하철 사고 후 지하철이 불연재료로 바뀌어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지하철 사고 이후에 안전 훈련이 된 거다. 그 정도 바뀐 것도 큰 변화다. 세월호를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는 적어도 잡아 놓고 그 외에 바꾸어야 할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관피아를 척결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한다. 유착 고리를 끊는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국민과 시민과 함께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는 운동은 없을까. 또다시 진보세력, 시민사회단체만이 범국민대회로 자꾸 만들어진다.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하면 100~200명밖에 안 나온다. 세월호 운동이 국민이 소외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다른 운동적 방식과 내용이 나와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 나와서 양자가 병립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보스턴 폭발사고 이후에 strong boston을 구호로 전 보스턴 시민들이 뭉친 적이 있었다. 9.11 이후 뉴욕시민들이 뭉쳤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이슈일 수도 슬로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창조적인, 시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젠다,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위험사회에 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 YMCA 운동 분야가 환경운동, 기후변화, 식품안전, 교통안전 등이 있는데 그 중 90%는 환경 기후변화 복지 지방자치였고, 식품안전, 교통안전은 상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위험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것이 복지사회고 민주사회고 생명이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 같다. 그런 인식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지역운동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안전문제를 복지에 결합시켰더니 좀 약하더라. 지역 아젠다, 이슈를 생명안전과 연결된 것으로 새롭게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한 사회'가 뭘까?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니 쉽지 않다. 이런 토론들이 많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얼마 전 토론회 주제발제에서 독일, 핀란드 사례를 들어서 결국은 극복의 힘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고 각성하는 시민들을 통해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하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시민이 세월호 문제를 짜증내고 지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은 잘 모르겠다.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안산에서 그런 책임하에 노력해보겠다 말씀을 드린다.

집담회 “무엇을 할 것인가”



전진택

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해 지역 단위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 촛불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번져서 집중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생기는 것 같다. 광주 쪽도 시민상주모임이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마을촛불모임, 아파트 한 단지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촛불을 같이 켜고,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다. 3년상 얘기도 한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를 중심에 두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운동이 된다면 진영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중심 화두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생활과 생각을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촘촘한 단위들을 만들어간다면 어떨까 한다.

이안소영 _ 여성환경연대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다.

한 달쯤 됐을 때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잊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기념 팔찌를 만들어서 나누었는데, 의미가 있었다.

‘세월호 수다’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이 구별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다. 집담회도 있었고, 요즘에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수다’라는 이름으로, 세월호가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밀양, 의료민영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이 다 이어진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고 하고 있다. 신청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활동

가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진행한다. 집담회 이후에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었던 생각과 마음을 안 잊어버리고 이후 일들을 해 나가게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계속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있다. 한번은 모임에 오신 분 중에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을 하는 분도 있었다. 세월호의 원인과 해결책을 쓰고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 반대하신다는 분도 이게 너무 길어서 지치고 힘들다고 하더라. 과정에 오해도 있었다. 우리가 서명운동이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해오진 않았나 고민도 들었다.

제가 사는 성미산마을에서도 촛불모임을 해오고 있다. 열 명이 두 달 넘게 해왔는데, 어제는 네 명이 나왔다. 사람이 모이게 하는 운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참여 수위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세월호 집회를 저녁 8-10시까지 하는데,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오기는 힘들다. 노란 리본을 만들어주는 일, 내가 집회에 갈 동안 아이를 봐주는 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틀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의료민영화 집회에 같이 참여했던 분께서 세월호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덮인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독립된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리로 꿰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해서 돈보다 생명이라는 화두를 던져왔는데, 그 다섯 글자가 아니라 삶으로 구체화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정책이든 운동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돌봄과 살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생활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든다고 우리 사회가 전부 달라지진 않겠지만 구체적인 시작으로 필요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광장으로 불러내는 것 외에 작은 단위로 끝까지 한번 해 보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균열을 내는 일을 지역에서 붙잡고 해 나가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박봉희 _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안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의사연수회 때 정신치료학회 회장을 모시고 정신건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들이 실제 진료실에 오는 우울증이나 사고 이후의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신질환에 대부분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또 한 부분에서는 정서장애, 감정장애라고 한다. 공황장애, 강박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진료실에서 적극 케어 하는 게 중요하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은 이벤트성이다.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월호 이후에 응급시스템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자기 운동 과제를 가지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는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무게가 우리 일상으로 다 들어와 있다. 잊지 않아야겠다는 강박도 있지만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푸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성환경

연대의 '수다모임' 같은 것이 일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협동조합에서도 작년부터 그런 논의를 해왔다.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묻기 시작했다.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을 드러내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월호 참사 같은 주제를 던져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굿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국민 전체가 애도할 수 있는 판을 조직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필요하겠고, 이성을 찾고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가족들 입장에서 잊히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심미경 _ 한살림경기남부

칠보산마을은 대안학교와 방과후, 환경단체, 한살림모임으로 구성되어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동네다. 한살림모임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초록장터'를 열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4월 말에 취소를 하고 5월 말에는 고민 끝에 행사를 열었다.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행사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우리가 꼭 멀리 가서 같이 구호를 외쳐야 되겠느냐, 우리끼리 모여보자고 해서 행사 정리 후에 촛불 모임을 처음 가졌다. 이후에도 마을에서 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계속 이어왔다. 오늘 저녁에 열 번째 모임이 있다. 더불어서 서명운동, 아파트 내부나 인근 마을에서 하고 있고, 베란다 현수막 달기를 3천 세대 중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살림 마을모임 하면서 마을 장터 정도 여는 조합원들이었는데, 촛불모임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 열 명에서 지난주에 40명까지 늘었다. 준비와 진행도 스스로 하면서,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기 성장, 깨어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나누고, 한살림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단체 이름을 내걸지 말자고 해서 주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 느티나무통신에서 와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굉장한 동지의식이 생겼다는 거다, 또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각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청계광장 집회에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줄면서 무력감도 들고 특별법이 제대로 될지 우려도 되지만, 뭔가를 꼭 해내서가 아니라 지금은 옳지 않은 게 눈에 보였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주고받았다.

전웅기 _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00일 동안 순례 하는 도중에 세월호 참사를 만나고, 순례 이후에 국민적 대화의 광장을 열어보려고 고민을 했었다. 내부에서부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종교인들도 쉽지 않았다. 일상을 던져 놓고 뭔가를 새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야단법석을 조직하면서 실감했다.

두 가지 층위의 흐름이 있을 것 같다. 통상적 수준에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안전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있고,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 같다.

반면 오늘 집담회의 주제는 보다 근원적 물음에 가깝다. 내가 만일 탑승객이었다면, 선원이었다면, 해

경이었다면, 통솔자의 역할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탑승객 가운데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고, 시키는 대로 남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대다수 희생자가 있었고, 스스로 살길을 찾았던 분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 모습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 우리 사회 여러 현장에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가치를 갖고 행동할 것인가? 답은 생명을 우선해서 선택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근본적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생명을 항상 우선시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조직화해 내는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성찰과 물음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던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다.

야단법석시민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열어놓고 하는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의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내놓는 소규모 야단법석이 충분히 조직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각각 영역에서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서 작은 야단법석을 자주 개최할 생각이다.

박혜숙 _ 한살림서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일들에 대응하다 보니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한살림서울의 경우 서명운동을 늘상 다른 이슈들과 같이 함께 했던 부분이 있다. 짧은 기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슈에 비해 참여가 많지는 않았다. 6,700명 정도를 서면으로 받았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뜻에서 집회에도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도보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자는 생각에서 기금도 마련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생명이 담긴 수다모임 같은 아이디어를 동네마다 마을모임에서 같이 하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윤기돈 _ 녹색연합

다른 재난과 달리 왜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트라우마에 빠졌을까. 만약 10명이든 20명이든 구해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 손 놓았던 정부를 보면서 같이 지켜봤던 것에서 트라우마에 빠졌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을 손 놓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면 세상을 바꾸기 쉽지만 그것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 기간에 월드컵이 있었다. 월드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누군가에게는 4년 기다려왔던 그 공간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했는가. 개인적인 요즘 화두는 '선형적 도덕주의'라는, 김우창 선생이 만해 한용운의 소설을 비판하면서 썼던 말이다.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선형적 도덕주의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 일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변화했던 과정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변해가는 과정들처럼 시민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이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안전이라는 화두와 함께,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민, 활동가 개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목숨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배에 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의 확장은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하는 사회인데, 개인적으로도 녹색연합 조직 안에서도 제 삶을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내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시민운동 진영과 더불어 살기 위해 어느 정도를 내어주고 공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 사회가 더불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새로운 관계 맺는 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에서의 노력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실천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도록 해야겠다.

박용광 _ 한살림경기남부

야구선수 임수혁 선수 사고 이후로 야구장에는 응급차량과 간호사, 의료진이 배치됐다고 한다. (안 된 곳도 여전히 많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야구협회 경영진이나 운영진 외에도 선수협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16일에 사고를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였다.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 개인적으로 임수혁 선수 사고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배우다 보니 내가 쓰러지면 할 사람이 없더라. 가족들을 다 배우도록 했다.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선 내 삶이 바뀌어야겠다고 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할 때 도와줘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전문가가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다. 전문적인 사전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건 이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우리가 당사 자라면 사전에 뭘 해야 할까.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스스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채인숙 _ 한살림경기남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슬픔보다는 '그동안에 뭐 했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다. 요즘은 뉴스와 신문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 그동안 너무 모른척하고 살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일까 찾아보고,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직적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현정원 _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경기남부도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하고 있다. 과천시부에는 단지별로 작은 마을모임들이 있다. 조합원들께 서명을 부탁드렸더니 각각의 반응이 있었다. 저 자신도 인원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이지 않았나, 터놓고 얘기를 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장에서는 서명을 부탁드렸더니 '중복'이나 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고 한다. 그런 조합원이 소수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한살림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일이 길어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를 바꿔내는 일, 거대 담론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서미영 _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고양파주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조합원들에게 말 걸기를 공식적으로 못했었다.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든 것을 주변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한살림 이름으로 하진 않았다. 이제는 매장에서 서명을 받고, 활동가들이 조합원을 만나서 서명을 받고, 거리에도 나가면서 그동안 350만 명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우리도 힘을 보태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아프고 힘든데 말을 터놓고 못했던 것 같다. 내가 뭘 하면 우리 사회가 괜찮아질지를 몰랐던 것 같다. 조합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만들면 잊히지 않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고 본다.

김기중 _ 한살림고양파주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지지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이제 그만 하자는 이야기로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 다양한 모습이 세월호에 대해 내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모임 단위에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해 봐도 좋겠다 생각도 들었다. 진상규명이란 말이 일반 시민들, 보수적인 분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면 보다 쉽게 다가가고 정겹게 풀어내는 말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팔찌 만들기 같은, 마음을 보태는 활동들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심세희 _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저는 안산에서 활동하고 사는 곳은 군포인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었다. 단체에 오는 청소년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추모 집회도 같이 참석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다. 위로의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다. 이상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목표들을 말씀하셨는데, 친구들이 만나면 세월호 이야기를 해도 잠깐 얘기하고 안타깝다고 하는 정도로 끝냈던 것 같다. 가슴은 답답하지만 대안적 실천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동아리나 스터디를 제안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만나게 된 세월호 생존자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

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박혜숙 _ 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의 경우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실 분들께 집회 참여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도 깃발을 세운 이유는 한살림이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보다도 모임 장소로, 집회에 오신 분들이 낯설지 않게 같이 한살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의미를 갖고 참여했다. 내일도 많이 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김영연 _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교육운동 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 선생님 말 안 듣는 애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었다. 학교의 문제, 어린이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2007년 유네스코에서 교육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쓰나미가 왔을 때 대처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나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도 토론이 됐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친다고 한다. 일본은 지진 강도가 1일 때, 2, 3일 때 아이들의 균형감각, 몸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습관화되게 연습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실제 사고 시 사망률이 적다.

교사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정도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자책도 많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치나.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암울한 분위기가 있었다.

분향소에 갔는데 세 번째 갔더니 눈물이 많이 안 나오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많은 반성과 함께,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고 교사들은 뭘 가르쳐줘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토론을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선뜻 나서는 교사가 없다. 오늘 이런 집담회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다.

김보하 _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지부에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 천만인 서명도 그분들께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잊히지 않는 길이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로 느끼도록 장치를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을모임, 소모임이든 같이 내 문제로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주요섭 _ 모심과살림연구소

이 자리를 다음에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깊게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

유정길

유가족들을 만나면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서명운동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 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서명운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이다. 숫자가 성과로 눈에 보이니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된다. 모임이 끝나고 난 뒤 그냥 흩어지지 않고 밴드나 카톡방을 꼭 만드는 게 필요하다. 후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전진택

집담회를 계속 해나가고, 장기적인 대안까지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당장은 유족들을 중심에 놓고 돕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내면 좋겠다. 유족 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근본으로 얘기하는 생명중심 세상으로 가는 데 닿아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실천들을 집중하면 좋겠다. 내일이 100일인데 생각보다 마음들이 꽤 많이 모이는 것 같다. 다음 모임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간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 시민상주모임처럼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상주가 돼서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100일 단위로 한 번씩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해도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 오늘 함께 해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 ●